

우리 이번에 이어서 문법 요소 두 번째.

피동하고 사동 표현부터 이번에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22번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양쪽으로 가장 많이 포진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널 문제가 많죠.

사실 피동의 경우에는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기 전에

일단 개념을 알고 있어야죠?

피동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동의 반대.

능동이에요.

그래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고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는

그러한 구성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또 피동과 능동이 항상 호환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장의 형태를 보시고

그 문장의 형태가 능동으로 실현 가능한지.

또 능동은 피동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해봐야 좀 눈에 익을 거예요.

그다음 애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따져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파생적 피동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는 결국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방법으로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미사를 사이에 끼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행위성을 가지고 있는 명사 어근이 될 텐데

어쨌든 이 어근에 더하기 되다, 라고 하는 접미사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기 지금 사이에 낀 놈들이죠, 다?

그리고 애는 어근에 항상 뒤에는 붙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접미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통사적인 피동이 있었죠.

우리 통사적이라고 하는 건 단어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조용언들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어지다.

사실 여기 이 지라도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애는 원래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띄어쓰기 조건 중에서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연결어미가  
아나 어일 경우라면 붙일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애는 좀 특이하게 붙여놨습니다.

띄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아지다, -어지다와 같이 붙여 써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게 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되다랑 이 되다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되다는 어근에 바로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접미사로 처리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근+되다로 만들어진 단어들은

사전에 등재를 해줘야 되는 거지만

애는 이렇게 띄어 썼기 때문에 한 단어가 아니죠.

보통 먹게 되다, 라고 하면 두 단어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파생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사적인 변화만 약간 더 주어진 거라서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 재료가 있었죠.

그다음 두 번째, 사동의 개념은 시키는 거죠.

행위를 시키는 건데 애의 반대말은 주동이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주동이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동과 주동을 서로 바꿔보는 연습 하셔야 돼요.

다음, 역시나 사동 표현도 파생어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생적 사동으로는 첫 번째,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으키, 이키, 애, 이우까지는 기억을 해서 확장을 해보세요.

맨날 이야기하는 거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만 기억하는데 사실 이 세 개는 좀 특이하죠?

이 세 개는 아예 딱 한 단어 뒤에만 붙는 거니까.

여기 으키 같은 경우에는 일으키다.

여기에 이키는 돌이키다.

그러니까 일다, 일으키다.

돌다, 돌이키다.

없다, 없애다.

이렇게 해서 이 으키, 이키, 애는 사동 접미사이긴 하지만

다양하게 붙지는 못해요.

딱 제한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좀 다양하게 붙는 편이고

이우의 개념은 이 이하고 이를 두 개를 조합했다는 해석도 있고

하나의 접미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사전에는 하나의 접미사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히, 리, 기, 우, 구, 추.

그리고 이우 정도는 꼭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생적 사동이 있고요.

또 어근+시키다, 라고 하는 접미사를 이용해서 파생어를 만드는.

그래서 사동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던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통사적인 사동 방법.

이번에는 ~게 하다가 나오면 통사적 사동으로 보게 됩니다.

역시나 사동형이 되는 거죠.

두 개가 없어요.

애는 딱 하나.

통사적 사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동과 사동의 재료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급선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제로 종종 나오는 건

이렇게 피동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재료들을 두 개 이상 섞어 쓰게 되면 그건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중 피동이라는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두 개 이상 섞어 썼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라고 해서 어근+시키다, 라고 하는 구성이

굳이 안 나와도 될 문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게, 라고 하는 문장에서

친구 한 명 소개해줄게, 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즉 어근+시키다를 어근+하다로 바꾸었을 때 말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문장도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피동, 사동 문제로 출제가 될 텐데

먼저 22번부터 보도록 하죠.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피동 표현의 예로 적절한 걸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1학년 문제니까 쉬웠어요.

그러면 답지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 답지에서 이거.

서술어 부분만 끝내놓으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1번에 당기다가 나와 있고

2번에 감기다. 머리를 감기다.

그다음 밥을 먹이다.

그다음에 놀리다.

그다음에 흔들리다.

이 중에서 피동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애네들을 뭘 해야 돼요?

형태소 구분을 해주고 저 피동의 재료

이, 히, 리, 기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기 있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애가 당다, 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죠.

아예 당기다가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는 어근이 당기가 하나의 어근.

즉 애는 단일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파생어를 지금 찾아줘야 되는데 이 기를 쪼갤 수가 없어요, 당하고.

그에 반해 2번의 경우에는 어때요?

2번은 쪼개줄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머리를 감기다, 라고 했는데 머리를 감다가 있어요.

머리를 감다인데 머리를 감기다가 나왔어.

문제는 이거야.

이 기가 피동을 만들어주는데도 기가 있고

또 사동을 만들어주는데도 기가 있다는 거죠.

즉 이 부분이 겹쳐요.

그러면 이, 히, 리, 기가 끼었을 때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아, 직관으로?

그러면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줘야 되죠.

사동문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목적어를 데리고 온다.

그 문장의 목적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피동은 목적어 없냐, 피동도 목적어, 피동문에 목적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출제자가 이, 히, 리, 기 같은 걸 끼워서 줬을 때는

사동의 힌트를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목적어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 2번 답지 문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머리를 감기다, 라고 앞에 바로 목적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상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문장 내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

이렇게 골라내는 방법 좋고.

단, 피동문의 목적어가 항상 없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 히, 리, 기를 사용한 것을 가지고

~게 하다 쪽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어울리면 사동이죠?

만약에 이, 히, 리, 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 파생어를 가지고

~게 되다 쪽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어울리면 피동이라는 거죠.

즉, 이 감기다 같은 경우는 형이, 문장 맞습니까?

형이 동생의 머리를 감게 한 겁니까, 감게 된 겁니까?

지금 행위주가 안 나와 있어요.

사동주가 빠져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엄마나 형이나 이런 누군가겠죠.

그러면 형이라고 보면 형이 동생의 머리를 감게 하다예요, 감게 되다예요?

감게 하다가 어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의 기는 뭐로 볼 수 있다?

사동 접미사.

두 가지로 원, 투 해서 끝낼 수 있잖아요.

지금 목적격 조사 들어왔죠?

그다음에 ~하게 하다, 라는 거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었던 말이야.

3번 답지 가보세요.

아이에게 먹이다, 밥을 먹이다 했어요.

역시 이 먹이다의 경우에는 형태소가 먹이 해서 이가 쪼개져요.

맞아요?

먹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는 사동이나 피동이나.

이, 히, 리, 기 겹치잖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목적어가 있죠.

밥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사동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먹게 되는 거예요?

먹게 하는 거죠?

확실하게 사동이에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안 돼.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리다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

예문이 후배가 선배를 놀리다로 되어있지.

이거 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어 뜻을 잘 보셔야 돼요.

후배가 선배를 놀리다, 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얼레리 풀레리 하고 장난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지?

형태소 구분 어디서 끊어야 돼?

이게 놀다, 라는 단어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 놀리는 게 조롱하거나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노는 게 아니에요.

놀다, 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번 답지는 지금 이 놀리다가 빠져요.

애는 단일어예요.

어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 어때요?

공장에서 기계를 놀리다, 라고 하는 건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다가 플레이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것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놀리다는 놀다의 사동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리는 접미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애가 애랑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만 보면 안 되고

문장을 꼭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5번 답지, 정답이죠.

왜? 흔들리다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다, 흔들리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흔들리다 앞에 목적어 없죠, 문장에.

태풍에 건물이 흔들리다.

그래서 목적어 없는 거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흔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동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골라내는 거야.

쉬운 문제가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이게 1학년 문제지만 여러분이 여기 단어에 대한

그 구분 잘하셔야 되는 거고요.

뜻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23번 가보도록 하죠.

보기에 ㄱ부터 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ㄱ은 파생적 피동, ㄴ은 통사적 피동.

선생님 ㄷ, 어휘적 피동.

선생님, 어휘적 피동이 뭔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어휘적 피동이라는 걸 추가로 해줘서, 이걸 보기에 설명 나왔으니까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두 개만 공부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어휘적 피동을 추가하면

위에 걸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휘 자체가.

그 어휘 자체가 약간 좀 당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뭐라고 했죠?

당하다.

여러분, 이 당하다 여기 안에 들어갑니까, 재료?

들어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는 뭔가 말 그대로 당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휘적 피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5번에 보게 되면 당했다 나와 있죠?

이런 게 어휘적 피동에 해당하는 거고.

1번부터 볼게요.

ㄱ, 들리다가 나왔습니다.

들리었다죠.

듣다에, 여러분, 들리다가 만들어지는 게 듣다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ㄷ이 모음 어미 만나서 르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에는 좀 특수한 사례예요.

ㄹ이 첨가되는 아주 특수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표현이 들리다, 라는 단어가

듣다에서 변화된 거라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동이나 피동 접미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문장에 없어.

음악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가 들어가 있는 거 피동형이고요.

그러면 파생적 피동 걸렸죠.

**2번,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어떻게 처리해야 돼?**

보이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보게 된 거죠.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보이에서의 이 이가 바로 파생어를 만들기 위한 피동 접미사입니다.

**3번 가보도록 하죠.**

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만들어졌다고 되어있는데 만들다에 어지다가 지금 들어가 있죠.

만들어지었다니까 어지가 지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재료 찾아줬죠?

그래서 통사적 피동 걸려들어 갑니다.

**4번 가보죠.**

지금 ㄷ에 어휘적 피동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거 되다가 지금 어휘적 피동인가 보다.

맞을 수도 있어요.

되다도 역시 어휘적 피동의 예가 됩니다.

이 문제 어려워요.

그런데 왜 **4번**이 답이냐, 예문 하나 적어볼게요.

잘 판단하세요.

지금 위에 있는 이 되다랑 밑에 있는 이 되다랑 같은 느낌인지를 보세요.

이제는 계절이 봄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가 있습니까?

우리 피동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봄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

신이 계절이 돌아와야지, 이제 봄이 되어라 해서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개념이 이 문장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즉 자연의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동적 의미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이 문장은 어때요?

그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

이건 자기가 난 포로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잡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당한 거가 맞아요.

그래서 이때의 되다가 어휘적 피동으로 볼 수 있는 구성이에요.

따라서 이 4번에 되다가 아예 어휘적 피동이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고

문장을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까다롭습니다.

4번에 되다는 잘 기억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어휘적 피동을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4번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사동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네요.

ㄱ은 나무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했다.

그 뜻에 맞는 거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동문이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윤호에게 책을 읽히셨다, 라고 했어요.

히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읽히시었다니까 히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읽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앞에 목적어가 있어요, 책을이라고.

다음 2번 갑니다.

용언의 사동 접미사가 두 개 붙는 경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이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재우고가 나왔어요, 아이를 재우고.

지금 재우다죠?

재우다 뭐랑 관련 있는 단어야? 자다야.

그러면 애가 지금 이렇게 쯤갈 수 있어요.

이해되지죠?

예를 들면, 세우다.

차를 세웠어.

그러면 차가 스스로 서는 건데 서+이우+다.

이렇게 쯤갈 수 있단 이야기야.

그런데 이거를 국립국어원 기준으로 해보면

이 사전에 이우라고 하는 접미사가 있는 거로 제시가 되어있어요.

사동 접미사.

그런데 2번 답지는 뭐라고 해줬냐면,

두 개의 접미사가 결합되어있는 거로 보고 있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이 이우가 이 하나랑 우 하나의 결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2번 답지는 무조건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이거 두 개로 봐야 하는 해석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후보로 놔두고 내려가셔야 돼요.

3번을 봤더니 ~게 하다, 라는 거.

당연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게 하다는 방법을 통해 사동을 만들 수 있었고

예문으로 영희가 태호에게 사과를 꺾게 했다가 나왔으니까 맞는 이야기죠.

4번,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였습니다.

이거예요.

사동 문제인데 입다라는 단어를 사동을 만들고 싶으면

과생적 사동으로 입히다를 써도 되고요.

이 히를 사용해도 됐고 입게 하다와 같이

통사적 사동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가 과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렇게 썼을 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의적 해석.

어느 쪽이 중의냐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건 어느 쪽이냐.

그러면 여기서의 중의는 어떤 개념이냐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어머니가 직접 했는지

아니면 말로 하게끔 만들었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어볼게요.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게 했다, 라고 하면

직접 하는 행동이 있나요, 이 뜻에?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게 했다.

이렇게 안 쓰지 않나요?

무슨 이야기예요?

야, 옷 좀 입어라.

빨리 가야 되니까 옷 입어.

해서 네, 알았어요, 하고 동생이 입었다고 하면

입게 했다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즉 애는 간접 사동의 뜻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생적 사동을 쓰게 되면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히다, 라고 하면 팔 들어봐.

동생이 되게 어려서, 이것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사동의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는 게

말로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사동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자연스러운 문장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중의적인 해석을 할 때  
그 중의적 해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거냐면,  
일단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온 것처럼 파생적 사동을 쓰고 있는 것이 중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중의를 해소하기 위해.  
만약에 애가 간접 사동.  
어머니가 말로 한 거 같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의미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게 틀리다는 건 아니야.  
입히다 쓰면 문장이 잘못됐어? 잘못된 문장 아니예요.  
그냥 중의적 문장이라는 거야.  
비문이랑 중의문장이랑은 잘못, 다른 거예요.  
비문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야만 해.  
그런데 중의문은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  
모호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명쾌하게 바꿔주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명쾌하게 바꿔주자.  
간접 사동 기능,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직접 사동으로 해결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사이에다 넣어주면 돼.  
직접.  
이런 말을 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문장에서 출제가 될 텐데  
우리 지금은 4번 답지에 확인해볼 수 있겠죠.  
보시면, 스스로 입게 하셨다.

앞에 또 스스로까지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뭐야?

말로 한 거야.

간접 사동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중의적인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5번에 보게 되면 삼촌께서 올해는 농장에서 돼지를 먹인다고 하셨다.

이런 단어도 좀 특이한 거죠.

우리 먹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이러면 이거는 사동이 맞아요.

그런데 돼지를 먹이다, 라고 한다는 건

돼지를 기르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때는 먹이다에서 이를

사동 접미사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5번도 맞는 설명이 돼요.

이 2번도 좀 헷갈릴 수 있었고 5번도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4번을 잘 골라낼 필요가 있었네요.

2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 능동문의 주어, 목적을

각각 피동문의 부사어와 주어로 바꾸고.

이거는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건 아니라

몇 가지 예문을 수정을 직접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밑에 나오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능동문의 서술어에 알맞은 피동접사나 어지다, 이런 걸 써라.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중피동 주의하라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먼저 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을 보면, 마을이 폭풍에 휩쓸리다.

피동문이 만들어졌네요.

왜? 휩쓸다, 라고 하는 거에 뭐가 붙었다?

접미사인 리가 붙었어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당한 겁니다.

그다음에 ㄴ을 보게 되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라고 했을 때

히를 사용했던 거 보이죠? 피동입니다.

그의 오해가 동생에 의해 풀리다.

풀다에 그렇게 된 거 리를 또 사용했네요.

어쨌든 애네는 전부 다 피동문으로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목적어 안 보이죠?

그러면 1번, ㄱ에 힙쓸리다는 힙쓸다의 어근에 피동 접사가 붙은 거야.

원래 애가 능동으로 쓰였다면 그냥 힙쓸다.

이렇게 썼을 텐데 리를 지금 사용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다음 3번, ㄱ을 능동문으로 바꾸기 위해.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돼?

주어가 되죠.

폭풍이 리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힙쓸다.

힙쓰는 주체는 폭풍이고 뭘 힙쓸어요?

마을을.

답지 틀렸네, 왜?

폭풍에가 목적어가 되는 게 아니지.

폭풍에는 뭐로 가야 돼? 주어로 바뀌잖아요.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답 나오죠?

3번, ㄴ을 능동문으로 바꿔보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도둑을 잡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능동문으로 바꾸면 행위의 주체가 경찰이 된다.

행위의 주체가 주어, 경찰이 된다.

다음 4번, 잡혀다를 잡혀지다로 바꾸면 불필요한 피동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잡혀지다를 썼다는 건 뭘 쓰는 거예요?

잡혀지다, 이걸 쓴 거죠.

재료를 쪼개보게 되면 히도 있고 어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중 피동이다.

그래서 빼야 돼.

다음, ㄷ에 보게 되면 풀리다를 쓰지 않고

풀어지다를 써도 괜찮지 않느냐, 왜요?

애는 파생적 피동, 애는 통사적 피동.

재료를 다르지만 다 같은 피동을 만들어주는 요소이긴 하니까.

단,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풀려지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러면 이중피동이 나오죠.

오해가 풀려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잘못쓴 거.

이건 비문.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잡혀지다 그러면 비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6번.**

보기를 바탕으로 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예문, 언니가 동생을 안았다가

**A**로 가게 되면 무슨 문장이 됩니까?

동생이 언니에게 안기었다예요.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피동이죠.

당한 거죠.

목적어도 안 보이잖아요.

**B** 보세요.

엄마가 언니에게 동생을 안기었다.

이건 뭐예요?

사동이죠.

여러분, 이게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는  
일단 주어 하나가 새로 등장해야 돼요, 반드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목적어가 나오는 것도 맞지만  
목적어도 중요하고요.

새로운 주어가 튀어나와요.

사동주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B나 D의 경우에는 원래 ㄱ이나 ㄴ 예문에 없었던  
새로운 주어가 튀어나오고 또 ㄴ이나 ㄷ에 문장에 보면  
목적어들이 보이죠.

B하고 D에 보면 B에는 동생을, 그다음에 D에는 그림을.

이런 사동이라는 거 알려주는 정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1번 가보도록 하죠.

ㄱ과 A를 보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ㄱ은, 선생님, 능동문하고 주동문은 무슨 관계예요?

같은 문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문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주동문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다를 뿐이고 같은 문장일 수 있는 거죠.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 하고 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이자 주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동문하고 사동문의 반대의 개념으로 용어를 설정하다 보니까  
용어가 다른 거뿐입니다.

물론 언제나 주동문하고 능동문이 일치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러나 일단 여기 ㄱ 문장은 주동문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능동문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무튼 ㄱ에 보면 언니가 동생을 안았다, 라고 했었는데

이때의 능동문의 주어는 언니가죠?

피동문의 뭐가 되었다?

언니에게로 바꿉니다.

1번 설명 맞고요.

다음 2번 갑니다.

ㄴ과 C를 보면 능동문의 목적어.

그림을 보았다, 라고 했으니까 그림을이 목적어죠?

애가 피동문에서 목적어로 안 보이잖아요.

그림이로 바뀌었잖아요, 주어로 바뀐 거죠?

정답은 2번.

3번, ㄴ과 D를 보면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주어.

이거는 지식적으로 맞다니까?

사동주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기서도 D에 형이라는 사동주가 생기죠.

4번, A와 B를 보면 피동사나 사동사의 형태가 같을 수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A가 피동, B가 사동.

또 C가 피동, D가 사동이에요.

그런데 A하고 B가 똑같이 파생적 피동과 사동을 사용했는데 안기다를 썼어요.

뭐라고요? 안기다.

그러니까 이 기라고 하는 접미사가 무조건 사동이다 피동이다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A 같은 경우에는 피동을 만드는 접미사 기였고

B의 경우에는 사동을 만들어주는 접미사 기로 보면 되는 겁니다.

C에 나와 있는 보이다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보이다도 무엇이 보이다 이러면 피동이지만

무엇을 보이다 하면 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동이 됩니다.

이때 보다에 이가 들어갔을 때 피동인지 사동인지는

그 문장 전체를 보셔야 해요.

그다음요.

4번 그 이야기였고.

5번에 보게 되면 B와 D를 보게 되면

~게 하다를 활용할 수도 있구나.

D는 그랬잖아.

다음, 27번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던데요?

우선은 1부터 해결해봅시다.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 동사를 골라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이, 히, 리, 기 못 넣는 거 골라내면 돼.

1번에 주다를 피동을 만들기 위해 주이다, 주히다, 주리다, 주기다.

이렇게 안 되죠.

주다 안 되죠.

그러면 1번이 성립됩니다.

2번 가보죠.

먹다.

당하는 거로 만들기 위해서 뭐 넣을 수 있죠?

먹히다 쓸 수 있죠.

토끼가 사자에게 먹히다.

이러면 당하는 거, 피동이에요.

2번은 지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1에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번 지웁니다.

돕다.

돕이다, 돕히다, 돕리다, 돕기다.

안 맞아.

그냥 이걸 어떻게? 돕게 되다.

이런 거 써줘야 돼.

그러니까 C는 가능해요.

파생되지 않아요.

만나다.

만나이다, 만나히다, 만나리다, 만나기다.

만나게 되다, 만나지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도 이걸 안 되죠.

역시나 4번도 후보가 됩니다.

나누다.

나누다 들어갈 수 있나요?

당하는 거.

나누이다 되죠.

선생님, 나누이다가 뭐예요?

줄여 쓰지.

어떻게? 나뉘다로.

이런 거 못 찾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나뉘다.

나누이다 안 되네? 이러면 안 돼.

나뉘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2번하고 5번을 제거하세요.

그래서 1번, 3번, 4번 남겨놓은 상태.

그다음에 두 번째 나, 능동문의 서술어로 쓰인

동사의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 거

이, 히, 리, 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일단 1번에 서술어가 잡다예요.

잡다의 피동사 있다 없다?

있죠.

뭐 있어? 잡히다.

당하는 거 잡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파생적 피동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다.

애는 가능하죠?

지금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입니다.

1번 지웁시다.

다음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듣다죠, 칭찬을 듣다.

그러면 듣다가 피동이 되면 들리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애는 들리다를 이용해서 문장에 쓸 수 있습니까?

즉 칭찬이 부모님에 의해 동생에게 들리다.

문장 말 되나요?

칭찬이 부모님에 의해 동생에게 들리다.

안 되죠.

그래서 3번은 듣다에 피동사는 있는데.

들리다, 라는 피동사는 있지만, 이 문장을 피동문으로 만들긴 어려웠다.

그렇게 파생적 피동문을 만들긴 어려웠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 후보가 되는 게 4번이었죠.

그리다 같은 경우에는 피동사가 있습니까?

그리다, 그리이다, 그리히다, 그리리다, 그리기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피동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4번도 지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2번하고 5번 예문도 한번 보실래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뽑다의 피동사 있습니까?

풀이 뽑히다가 있죠, 히.

히를 쓰면 뽑히다.

그러면 지금 2번에 나 문장은 파생적 피동문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이 사람들에 의해 뽑히다.

이러면 될 거 같지만 열심히를 빼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풀이 사람들에 의해 열심히 뽑히다.

안 돼.

열심히 때문에 문제가 돼.

이 문장은 피동문으로 만들기 너무 어색하단 말이야.

열심히를 빼지 않는 한.

어색해요.

5번은 어때요?

달았다, 단다.

달다의 피동사가 뭐죠?

달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문장 달히다 쓸 수 있습니까?

문이 누나에게 일부러 세게 달히다 안 돼.

일부러 때문에도 되게 어색해.

결국 피동문으로 만들라, 라는 이야기는

이 문장 그대로 피동문으로 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료를 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시간도 꽤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동, 사동 바꾸는 거 호환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의 경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쉽다.

일단 ㄱ에 두 가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걸 골라보자고 이야기했는데

1번은 직접 한 거죠, 다정이가 채운 겁니다.

문제없고요.

29번도 어렵지 않아요.

이건 뜻 관련 지어 보면 되는 거고요.

어휘적인 문제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알맞고.

1번, 2번 서로 뒤집으면 될 것 같아.

(가)하고 (나)가 서로 뒤집히면 되죠.

또 4번하고 5번도 서로 뒤집히면 되겠죠.

이런 거 넘어갑시다, 쉬운 문제.

30번 가보도록 할까요?

30번 판단해보자.

보기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1번 갑니다.

ㄱ과 ㄴ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

ㄱ에 주어 동생이가 C에서 동생으로 바뀌었어요.

ㄴ의 주어인 A에서 주어인 동생이가 C에서는 동생에게로 바뀌었어요.

즉 하나는 목적어, 하나는 부사어로 바뀌어요.

그러면 1번 틀리네요?

2번 갑니다.

ㄱ과 ㄷ을 보면 A가 B로 바뀌었을 때 자릿수가 늘어나.

ㄱ은 동생이 숨는다니까 숨는다는 자릿수 한자리.

주어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B, 사동사에 의한이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

2번 무조건 정답이야.

왜요? 사동주가 새로 튀어나온다고 했잖아.

추가된다니까?

그래서 ㄱ에 A를 보면 동생이라고 하는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건데

ㄱ의 B를 보면 숨긴다가 숨기다가 나올 때 주어랑 목적어 필요해요.

다음, ㄷ도 보세요.

실내 온도가 낮다 하면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건데

사동문이 되었다는 건 새로운 사동주에 목적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ㄷ에 주어인 누나가 실내 온도를 목적어.

두 자릿수가 된다는 거죠.

즉 사동문이 되면서 한 자리가

두 자리로 변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3번, ㄴ과 ㄷ을 보면

A가 B로 바뀌었을 때 접문장이 된다, 라고 했는데

절이 늘어나진 않죠.

그래서 다 홀문장입니다.

4번, ㄴ과 ㄹ을 보면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우리 타동사라는 게 뭐야?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를 이야기해.

ㄴ의 문장에서는 밥을 먹는다, 라고 했으니까

먹다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 맞아.

ㄹ도 공을 차다.

그러면 이때 차는 목적어.

지금 여기 있으니까 타동사 맞아요.

그러면 애네가 사동사가 있는지를 딱 따져봤더니

ㄴ은 먹이다, 라는 사동사가 있는데

ㄹ은 해당 사례 없음이라고 써 있죠.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4번 답지 사동사가 없군 하면 ㄴ은 있으니까 안 되죠.

다음 5번에 ㄷ과 ㄹ을 봤을 때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ㄷ은 낮다 형용사.

그다음에 ㄹ은 동사가 되죠.

그러면 A의 서술어가 형용사면 사동문 못 만든다.

ㄷ 문장 보면 다 사동문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틀렸어요.

31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31번 문제랑 33번 문제랑 어때요?

같은 구성이죠.

지금 두 개씩 답지를 주고 애가 사동인지 피동인지

하나는 사동, 하나는 피동 골라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거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풀라고 했어?

이런 구성의 문제는 우리 내신에서도 잘 볼 거예요.

분명 보기에에는 이게 두 개씩 줬으니까 앞에 ㄱ은 사동 쓰고

그다음에 ㄴ은 피동 써라.

이렇게 나와 있던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설마 여기 답지 중에 아까 이야기한 거 당기다나 놀리다.

이런 거 나와서 헛갈리게 했으면 그러면 진짜 어렵게 낸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냅니다.

우선은 사동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 목적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로 간 상태라고 봅시다.

다음.

피동에는 목적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없어요.

아니다, 이것도 엑스로 갈게요.

우선 빨리 가보셔야 돼요.

지울 수 있는 거 뭐죠? 사동에 목적어 없는 거부터 빨리 지워.

사동 자리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빨리 지워.

그러면 1번하고 4번이 남아 있어.

그러면 피동 자리에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이 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사동인데 없으면 일단 피동은 맞잖아요.

문제는 이놈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사동이겠죠, 당연히.

피동일 수 없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됐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보세요.

일단 2, 3, 4는 가차 없이 지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번하고 4번이 뭐야? 다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둘 중의 하나는 사동인 거고 하나는 사동인척하고 있는 피동일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경우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뺏기다, 잡히다 같은 거.

밟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돈을, 손목을, 발을, 발등을 목적어 지금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뺏다에 기 들어갔고

잡다에 히 들어갔고 밟다에 히 들어갔는데

이 기, 히, 히가 사동이냐, 그건 아니죠.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다 당한 거야.

뺏게 만든 거 아니고요.

밟게 만든 거 아니고 잡게 만든 거 아니야.

당한 거예요, 전부다.

그러면 애네들이 피동이에요, 사실.

그래서 혹시 이런 어휘를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나와봤자 이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휘가 뺏기다나 잡히다나 밟히다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적어를 갖고 나올지라도 개는 사실 피동인 거죠, 뜻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게 이런 데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정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애는 진짜 사동, 애는 사동처럼 목적어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피동이었던 놈이다, 라고 골라내시면 되겠고

이럴 때 4번은 반드시 사동인 게 여기 있었겠죠.

답이 이중 답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게 편한데.

저렇게까지도 헛갈리게 안 했어.

31번 먼저 가보세요.

ㄱ 사동, ㄴ 피동이어야 돼요.

ㄱ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일단 ㄱ만 먼저 봐.

1번 지워야지, 목적어 없어.

2번 지워야죠, 목적어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면 사동이 아니야, 지워.

3번, 목적어 나와요, 옷을 표시.

다음 ㄱ, 목적어 있어, 몸을 표시.

5번, ㄱ에 목적어 있어, 꽃다발을 표시.

그러면 3, 4, 5번이 후보야.

1, 2번 뭐하러 열심히 보냐고.

시간 줄일 수 있죠?

그다음 보세요.

피동사로 쓰였다, 라고 하면 목적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번 보니까 ㄴ에 목적어가 있어요.

다음에 4번에 ㄴ에 목적어가 있어요.

3번에 ㄴ은 친구를, 4번에 목적어는 ㄴ에 고드름을 나오죠?

ㄴ 가보세요.

아기 꿈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목적어 안 보여.

안 보이면 사동은 아니야.

그러면 피동이겠죠.

여기에 확실하게 단정 짓겠다.

일단 5번이 가능성이 되게 높았는데

5번에 이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

이런 거 하세요.

~게 되다, ~게 하다로 한번 치환해보는 작업을 해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5번 예문에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게 한 거죠?

사동이야.

다음 ㄴ 문장은 아기곰이 어미 곰에 포근히 안기어진 거죠.

당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피동 맞잖아.

3, 4번은 그렇게 열심히 안 봐도 돼요.

곧바로 32번 말고 33번 먼저 봐 봐요.

똑같이 가볼게요.

ㄱ이 사동, ㄴ이 피동이래요.

1번부터 ㄱ에 목적어, 동생을.

2번 ㄱ에 목적어, 안 보여, 지워.

안 보이면 지우면 된다고요.

3번, ㄱ에 목적어. 안 보여, 지워요.

4번에 ㄱ에 목적어, 동생을 나오죠?

5번에 ㄱ에 목적어, 종이비행기를. 목적어 나오죠?

그러면 후보는 1번, 4번, 5번.

ㄴ은 피동이어야 돼요.

그런데 ㄴ에 목적어 보여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에 ㄴ에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졌다.

안 보인단 말이야.

5번에 ㄴ에 인물을이라고 목적어가 보여.

4번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4번 딱 봤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ㄱ, 동생을 숨기었다.

숨다, 기 들어갔죠?

그렇게 만든 거죠? 사동.

그런데 ㄴ은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

눈을 감다가 감기다야.

그렇게 된 거지, 피동 맞잖아.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목적어 유무 가지고 판단하면

되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32번을 보게 되면 이 문제는 결국 여러분, 이렇게 피동, 사동 문제를 냈고

파생적인 사동이나 피동이나 문제를 내는 건

기본적으로 어간, 어미, 접미사 구분을 잘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 나오죠?

비워.

시간을 비워도, 라고 할 때 형태소 구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시간을 비우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비다 할 때 애는 자체적으로 있는 주동인데

이게 들어가면서 사동 된 거죠, 사동 접미사.

그리고 준말로 결합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 비워, 라고 할 때 어간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까지죠.

왜? 접미사는 어느 영역이 속한다고.

어간이라니까.

접미사랑 어근이랑은 이런 것들은 다 묶여서 어디로?

어간 영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미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부터 생각해?

어미 시작은 뭐부터? 선어말 어미가 있으면 선어말 어미부터.

선어말 어미는 뭐랑 뭐? 시제를 나타내거나 높임을 나타내는 놈 아니면

개는 접미사라고요.

앞에 사이에 뭐가 끼 있어?

접미사라고.

시제 높임 아니면 접미사라고요.

맨 마지막에 어말 어미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따라서 1번에 비워의 어간은 뭐야?

비우까지가 어간이야.

그런데 시간이 빈다 할 때, 형태소 나누면 어떻게 돼?

시간이 비+ㄴ+다잖아.

그런데 이 ㄴ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간은 여기까지.

선어말 어미부터 출발.

여기는 어미 영역.

그러니 비위에서의 어간과 빈다에서의 어간은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 2번, B에서의 높이는 형용사 높다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되게 좋았어.

그런데 B 문장을 보세요.

높이가 몇cm.

이게 아니라 아주 높이 뒤에 나는 새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높이가 뭘 꾸미고 있는 거야?

날다, 라고 하는 동사를 꾸미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이때 붙은 이는 명사화 접미사가 아닌 부사화 접미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은 형성된 명사가 아닌 부사라고 나왔어야 됩니다.

3번,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에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놀다의 이라고 하는 뭔가가 붙었어.

그런데 이가 명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해주는 전성어미일 수도 있고

또 진짜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일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죠?

앞에 수식되는 걸 보기로 했죠.

딱 봤더니 수식되는 건 없어요.

넣어줘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부사를 지금 넣어줄 거냐,

관형사 같은 걸 넣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넓은 같은 거 넣어줄 수 있냐.

마을 앞 공터를 넓은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넓은이라고 하는 자리가 들어가기에 괜찮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이 놀이는 명사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3번 설정이 맞는 거죠.  
4번 가보겠습니다.  
끓였다 부분인데 끓였다에 접미사 이가 들어간 건 맞죠.  
왜냐하면 끓였다는 끓이었다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건 이라고 하는 이 접미사가  
모든 동사와 결합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 히, 리, 기라고 하는 재료가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경우에 따라 다른 게 붙기 때문에 이가 다 붙는다, 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5번에 오시기, 라고 했을 때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기 때문에  
명사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일찍 오시기, 라고 했는데  
일찍은 품사가 뭐야? 부사죠.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현재.  
애가 지금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오다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2번 문제도 녹록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용언.  
아주 기초적인 지식인 용언,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어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근과 접미사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던진 질문이에요.  
그다음 부정 표현 들어갑니다.  
피동하고 사동은 이렇게 나눠보고.  
문제가 좀 많았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다 이쪽에서 많이 걸려요.  
그에 반해 부정 표현의 개념은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그리고 말다 부정문.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짧은 부정문이 있고 긴 부정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부정, 부사죠?

개념을 잘 익혀놔야 돼요.

부정, 부사죠.

부정, 부사로 뒤에 있는 걸 꾸며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지 않다, 못하다의 구성으로 보조 용언 구성으로.

그러니까 이 먹다를 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동사를 갖다 놓은 겁니다.

말다 같은 경우는 언제만 쓰이는 거라고 했어요?

앞에서 꾸미는 건 아니죠.

~하지 하면서 말아라/마라/말아/마 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 또는 청유.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주로 명령이나 청유 쪽으로

보조 용언 개념으로 쓰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다 부정문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안이나 못 같은 거.

애네들이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자리는 사실 동사 자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먹다, 라고 이야기하면 의지 부정.

못 먹다 그러면 능력의 부정.

이런 거 나누죠.

그래서 능력이냐 의지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자리에 형용사가 왔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안 예쁘다, 못 예쁘다 중에서 못 예쁘다를 쓰는 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대신 안 예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건 의지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

그런 정보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 그런 기본적 지식에서 출제가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4번도 보시면, 1번 ㄱ, 못 먹었다.

이거는 능력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의미다.

능력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2번 겁니다.

그는 하루종일.

ㄴ 잘 봐야 돼.

ㄱ은 그는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았다고 바꿀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ㄱ 문장을 긴 부정문으로 바꾸는 건 가능해요.

그러면 바꾸려면, 그는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했다고 바뀌야 되는 거지

갑자기 애가 않았다고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능력의 부정에서 의지의 부정으로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었던 거죠.

다음 3번, ㄴ이나 ㄹ의 안 또는 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의지 부정이다.

다음 4번에 안은 아니의 부정, 았은 아니하다에서의 았다로 줄인 거니까

아니하의 준말.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ㄷ의 경우에 소라는 길을 걷다 넘어져서 못 일어났다라고 해서

짧은 부정문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좀 수월한 문제였고요.

35번 겁니다.

정답만 이야기해볼게요.

쉽게 5번.

일단 1번 가봅시다.

가다 동사죠?

2번 겁니다.

던지다 동사죠?

3번 먹다 동사에요.

이렇게 이 가다, 던지다, 먹다의 경우에는 동사이기 때문에

짧은 부정을 쓰든 긴 부정을 쓰든 안 부정문을 쓰든

못 부정문을 쓰든 그것이 능력의 부정인지 의지의 부정인지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4번과 5번을 보면 어둡다나 예쁘다는 형용사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둡다, 예쁘다 형용사예요.

그러면 일단 4번, 상태 부정.

안 부정문을 쓴다고 했습니다.

안 어둡다, 맞죠?

어둡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안 부정문을 쓰는데

안 부정문을 썼을 때는 의지성이 아니라 상태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번 설명 맞죠.

그런데 5번에 보면, 예쁘다를 부정했는데 짧은 안 부정문을 써서

안 예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의지 부정이라.

의지로 예쁘고 안 예쁜 게 아니란 말이야.

5번이 틀렸던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36번도 가 봐요.

먼저 ㄱ 가봅시다.

동작에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었을 때 안 부정문.

의지 부정이라는 이야기죠.

식사 안 했다.

2번, 부정하는 대상의 객관적 사실일 때 안 부정을 쓸 수 있다.

이거는 좀 문장을 보고 이해해봐야 될 것 같은데

ㄴ에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는데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의지나 능력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비가 오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객관적 정보 제시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ㄷ,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많은 준비를 했다.

말하는 이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안 부정문을 썼다?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이잖아요.

난 실패하지 않을 거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판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3번은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쓰였구나, 라고 해석해줘야 되는 거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드러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형용사라고 했어요.

안 예쁘다나 예쁘지 않다는 가능하다고 했고

이때 부정해주는 건 상태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예쁘다 이러면 어때요?

그건 어울리지 않아요.

형용사와의 연결에서 짧은 못 부정문은 아예 못 써요.

그런데 이렇게는 어떨까요?

예쁘지 못하다.

이런 건 쓸 수 있는데 그때 뜻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함.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형용사의 긴 못 부정문인데

이 경우에는 이런 뜻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딸을 낳았어.

그런데 이 딸을 되게 예쁜 여자아이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여기저기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태어났는데 날 닮았어.

어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은 이거는 아예 긴 안 부정문이고

그다음에 형용사의 부정은 맞는데 이때 긴 안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달성하지 못했다.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문장에서 볼 수 있었죠?

□에 보게 되면 폭설이 내려 못 갈 것 같다.

이건 외부 상황 때문에 자기 능력은 아니죠.

외부의 상황 때문에 능력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외부 상황의 원인을 보여주고 못 부정문을 사용했다.

문제가 없습니다.

37번, 보기의 사례를 탐구 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ㄱ 보면, 못하다는 앞말의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어

뒷말을 부정하기도 한다.

틀린 거 알겠죠?

지금 ㄱ에 지루하다 못해 졸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루하다 못해 졸리다에서 부정하는 건 지루하다 쪽이겠지

졸리다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졸리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가고요.

특히나 여기 3번처럼 말다 부정문을 쓰는 경우에

명령이나 청유 같은 데 주로 쓰인다는 거.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먹지 말자.

청유죠?

너 먹지 말아라, 명령이죠?

그런데 말다는 무조건 명령이나 청유로만 쓰이나.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런 말 쓰죠.

그러면 이걸 명령도 아니고 청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서문에도 쓸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단 그때의 말다 같은 경우에는

무엇하지 말다의 개념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말다 자체가 부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고

그거는 말을 말아야지라고 했으니까 뭐하지 말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해서 이때의 말다를 우리가 명령 청유로 생각을 하는 건

부정 표현일 때 이렇게 보조용언으로 사용할 때 ~하지 해서

이렇게 쓰일 때의 경우의 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5번도 좀 주의해보세요.

5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로 푸는 게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했는데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그래서 부사어하고 서술어의 호응이 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5번에 보게 되면 결코 같은 이 부사어는

~하지 않다, ~하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어랑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런 연결 고리도 잘 기억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가 38번인데, 이 38번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용 표현이 딱 한 번 나왔어요, 아직까지.

딱 한 번 나왔는데 앞으로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비록 하나지만 잘 좀 유심히 보세요.

평가원 문제였던 것이고.

직접 인용에서 간접인용으로 움직이는 문제의 틀을 많이 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 인용은 따옴표 뒤에 라고가 붙게 되는 건데

애는 이 따옴표가 풀리면서

고가 연결되는 기본적인 조사 변형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용 부사격 조사가 변하는 건데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 했다.

이런 걸 바꾸는 걸 잘해보셔야 돼요.

친구가 어제, 내가 내일 거기에.

그 거기에는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갈게, 라고 말했다.

이거는 그 친구의 대사를 직접 인용한 거기 때문에

대사 그 자체가 반영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간접으로 풀리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

친구가 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내가가 아니야.

재귀 대명사 있죠.

어떻게 바뀔니까?

자기가, 친구가 어제 자기가.

내일이에요? 어제의 내일은 오늘인 거죠, 결국.

그래서 오늘, 친구는 입장에서는 거기인데 내 입장에서는 어디죠? 여기.

여기로.

간다고 해요? 내 입장에서는 온다고죠.

짜 바뀌죠.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용 표현의 경우에 직접 인용에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는

내 입장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풀이가 필요하고요.

재귀 대명사 바뀌는 거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감탄사 같은 거.

공기 좋다.

그러면 여기에 친구가 아, 공기 좋다고.

아 같은 건 들어갈 수가 없어.

감탄사 같은 거 날려버려야 되고 변화가 극심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었던 시간성 정보죠?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요, 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때의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로 바꿔주고

다음 B, 계시라고 말했다면 틀려요.

지금 이게 높임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높여야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표현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우리 딸 아이가 저한테 항상 영어를 여쭙보네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그 아들은 당연히 계시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걸 풀어 이야기할 때는 있으라고로 바꾸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한 밑에 있는 문장에서도 언니는 어제 나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 라고 할 때의 이 나는

재귀 대명사인 자기에로 바뀌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남겨라고가 아니라 남기라고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참신하고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문장 표현 공부해보도록 할 거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올바른 문장 표현은 사실 개념적인 측면으로 공부하고

접근하는 문제의 틀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풀백 현대 문법에서도 올바른 문장 표현 쪽에서는

중의 문장 정도만 좀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꾸 문제로 접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거는 문제 풀면서 문제 나올 때마다 그런 파트에 해당하는 거

적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짝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